

인터넷을 통한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의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최재우*

A Study of Korean Tourists' Characteristics to New Zealand through the Internet

Jaewoo Choe*

요약 : 본 연구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의 관광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로서, 뉴질랜드 관광청의 자료와 한국의 관광통계 및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의 자료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의 뉴질랜드 관광의 가장 큰 변화는 효도관광 위주의 고령자 관광에서 젊은 세대들의 교육적 목적으로의 관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한국의 학교일정에 따라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관광객의 주요 관광목적지는 뉴질랜드의 교통시설, 젊은이들의 모험관광 선호지역, 여행사의 프로그램이 크게 작용하였다. 관광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14항목 5점 척도 기준에 평균 3.52를 나타내어 비교적 만족함을 알 수 있었으며, 약 2/3의 응답자가 다시 뉴질랜드 방문을 원했다. 뉴질랜드 및 한국의 관광 관련 단체들은 이처럼 변화하는 한국 관광객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합리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뉴질랜드, 한국관광객, 외환위기

Abstract : This study researche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visitors to New Zealand after the IMF Crisis(the 1997 Korean financial collapse), through data from New Zealand Tourism Board and an internet-based survey. Since the Korean financial collapse, the Korean visitor to New Zealand has changed from an older to a younger generation. The reason for this change in age is considered due to visiting as a family group, visiting to study English and the popularity of touring among the young adult generation. Thus the numbers of older generation travelers has decreased steeply, while an increase in younger visitors has occurred and they stay for longer and come during the school vacation period. The preferred or most popular itinerary is influenced by New Zealand's travel infrastructure, the younger travelers seeking adventure tourism, where this is located and package tours fixed itineraries. The main tour activities at attractions is visiting the tourist information centre, museums and internet cafés. These activities were popular with the younger generation and, along with New Zealand's unique scenic resources and famous activities, attracted visitors to the main tourist destinations. The average satisfaction levels of the respondents, according to the survey was 3.52 out of 5.00 criterion, this resulted from analysis of 14 items and their satisfaction levels. New Zealand and Korean tourism policy makers, including travel agents and tourism development authorities, need to devise efficient tourism policy to accommodate thes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tourists, as highlight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Internet-based Survey, New Zealand, Korean Visitors, the 1997 Korean financial collapse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던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년 동안 뉴질랜드를 방문한 한국인은 87,167명으로 호주(630,549), 영국(211,646), 미국(187,381), 일본(149,085)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나타나 뉴질랜드

에서 한국방문객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의 뉴질랜드 방문은 아시아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가장 급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의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래 뉴질랜드를 찾는 한국인의 수준과 관광의 식 및 관광행태 등이 달라져서 한국인의 뉴질랜드 방문은 통계상에서도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를 향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 관광객과 비교해서 매우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객 규모도 놀라울 만큼 증가되고

* 뉴질랜드 Waikato University 박사후 연수과정(Post Doctor Course, Department of Geography, Waikato University, New Zealand)(choejaewoo@hanmail.net)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특한 한국인의 뉴질랜드 관광에 관련된 양상과 특징에 관한 연구가 대단히 미흡하다.

특히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에 관련된 연구로는 “뉴질랜드의 한국관광객 특성”(김영성, 1997), “호주와 뉴질랜드행 한국인 관광객의 여행동기에 대한 연구”(차석빈·정동창, 1998), “한국인의 뉴질랜드 관광일정 및 여행 패턴에 관한 연구”(우경식·Page, 1999) 그리고 “1990년대 한국계 뉴질랜드인에 대한 가족이민을 중심으로 한 민족에 관련된 여행패턴 연구”(강경미·Page, 2000) 등이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뉴질랜드행 한국관광객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과 이후인 2002년의 최근의 현황과 자료를 종합하고 비교하여서 뉴질랜드행 한국인들의 달라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달라진 한국 관광객들의 사회·경제적 속성, 관광행태 그리고 뉴질랜드 여행에 대한 만족도 등을 찾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자료수집은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환경 덕분에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인터넷활용 연구방법이 해외관광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부수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뉴질랜드 및 한국의 관광관련단체에게 새로운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연구방법론의 정립에도 일조를 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뉴질랜드의 관광통계자료, 한국의 관광통계자료, 뉴질랜드를 방문한 한국인 설문조사 등 세 분야에서 수집하였다.

첫째,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인 관광객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7년 6월과 2002년 6월의 통계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관광객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의 해외 관광객 방문통계

(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to New Zealand), 뉴질랜드 관광청(Tourism New Zealand)의 통계 자료 및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이들 자료들을 통하여 뉴질랜드 행 한국관광객의 방문목적, 성별, 연령별, 체류기간, 계절별 등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여 제 2장의 뉴질랜드 행 한국관광객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통계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국방문객의 사회·경제적 속성, 방문장소, 관광활동, 여행만족도 등은 뉴질랜드를 방문한 한국인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얻어서 제 3장의 한국관광객의 특징을 구성하였다.

둘째로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한국관광객의 변화된 특성에 관한 자료들은 뉴질랜드에 관광경험이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얻을 수 있는 바, 한국의 수준 높은 인터넷 환경의 덕택으로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관광객들에 대한 자료들을 여행사의 자료를 분석하거나(Cha & Jeong, 1988) 준비된 설문지를 공항 등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다(Park & Mok, 1998; Wang & Kandampully & Ryan, 1998). 이와 같이 해외관광객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선택되고 제한된 여행사의 자료 또는 승객이 도착하는대로 공항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인데, 경비와 시간뿐만 아니라 신뢰도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시도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3)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

인터넷 설문조사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및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면접 설문조사로는 얻기 어려운 답변도 얻을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어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젊은층의 단독 자유여행객이 많은 현대관광연구에는 매우 순발력 있는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관광에 대한 연구방법론에 대하여서는 이미 Madge & O'Connor(2002), Litvin & Kar(2001), Tierney(2000) 등을 비롯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Madge와 O'Connor는 6주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하여서, 처음 2주간 110명의 응답자의 이메일과 나머지 4주간 합쳐서 총 155편의 응답을 얻었다(Madge and O'Connor, 2002). 1999년 Litvin과 Kar는 싱가포르의 전화목록을 통하여 2000명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237명의 응답을 얻었다(Litvin and Kar, 2001). Tierney는 홈페이지에서 광고형태로 설문조사를 하여서 약 2% 정도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고 주장하였다. 아직까지는 학자에 따라 인터넷조사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인터넷설문조사에 관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연구방법론이 없다. 하지만 더 많은 인터넷을 통한 연구 조사의 축적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로, 미래에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더욱 활발해질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2002년 6월 현재 총 2,565만 명(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으로 전체인구 대비 인터넷 이용률은 58%에 이르고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서 55:45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2002년 6월 현재 한국에 기반을 둔 홈페이지 수는 88만여 개로 추산되며, 뉴질랜드에 관한 한국어 홈페이지는 약 300여 개에 이르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수많은 인터넷 환경에서 연구에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에 관련된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접속이 많은 3개의 홈페이

지에 설문조사를 공고하였다. 하지만 응답률이 미흡하여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동호인 카페의 운영자의 도움을 얻어서 회원 전원에게 동시에 전자우편(e-mail)을 보내고 답변을 얻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즉 뉴질랜드에 관한 접속이 가장 많고 토론이 활발한 '다음(daum)' 홈페이지 내의 동호인카페 중 하나인 '뉴질랜드이야기(http://cafe2.daum.net/_c21_/)'의 운영자를 통하여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 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동호인카페 운영자는 한국에 있으면서 서로 전자우편으로 모든 인터넷 조사를 준비하였다. 3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2002년 8월 23일 오전 8시경에 약 7500명의 '다음 카페'내의 '뉴질랜드이야기' 회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은 필자의 전자우편으로 답장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002년 8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접수된 설문응답 전자우편은 모두 109편이었다. 이 중에서 내용이 미흡한 5편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04편이다. 7500명에 대하여 109명의 응답으로 본다면 응답률은 약 1.45%에 불과한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낮은 설문조사에 익숙하지 못한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다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고 문항이 많은 편이어서 응답률은 높지 않았지만,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였다. 심지어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며(Litvin and K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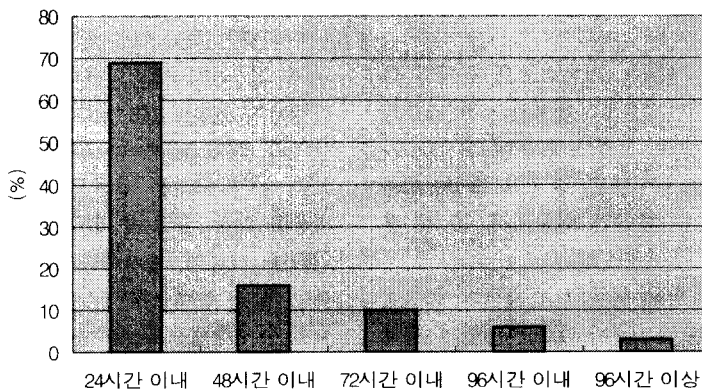


그림 1. 인터넷 설문조사의 시간대별 응답과정

2001), 대량 광고메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설문지의 응답과정을 보면 24시간 이내인 첫째 날에 약 66%에 해당하는 69개의 응답이 대거 접수되었다. 둘째날에 15%, 셋째날에 10%, 넷째날에 6%, 이후에 3%가 접수되어 인터넷 설문조사는 첫째날의 결과에 의해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1).

이번 조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고(60%), 15~24세의 젊은층이 가장 많았으며(45%), 학생의 참여가 압도적(49%)이었다. 학력은 대학생 이상이 89%로 매우 높았으며, 소득 수준은 중류생활자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 설문 내용면에서는 여행 만족도 부분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여 매우 적절한 답변을 얻었다고 생각된다. 일반 설문조사는 면접원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부족하고 면접원의 의도대로 이끌려 갈 수 있지만, 인터넷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있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솔직한 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인터넷 설문조사는 목적하는 경우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2. 뉴질랜드행 한국관광객의 변화과정

본 장에서는 한국인의 해외여행 방문객의 증가와 1997년 6월 기준과 2002년 6월 기준의 뉴질랜드관광청(NZTB)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 위기를 전후하여 달라진 한국인 관광객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즉 뉴질랜드관광청 자료를 통하여 관광객 증감상의 특징, 계절적인 특징, 인구구성적인 특징, 관광목적상의 특징, 관광채유기간적 특징 등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1) 한국관광객의 출국

한국인의 외국으로 향한 총출국자와 뉴질랜드로의 출국자를 연도별로 동시에 나타낸 것이 <그림 2>인데, 그림의 왼쪽 범례는 한국관광객의 총출국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뉴질랜드만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 여행 전면자유화가 실시되었다. 그 이전에는 국가경계와 국가 안보상 제한을 두었다. 그래서 1989년에 처음으로 출국자가 100만을 돌파하였고 1996년까지 한국인 해외 출국자는 급속도로 증가를 이루었지만, 1997년말 한국의 외환위기로 출국자는 급감하였다.

특히 방문목적 중에서 관광목적 비중이 높은 뉴질랜드로의 관광이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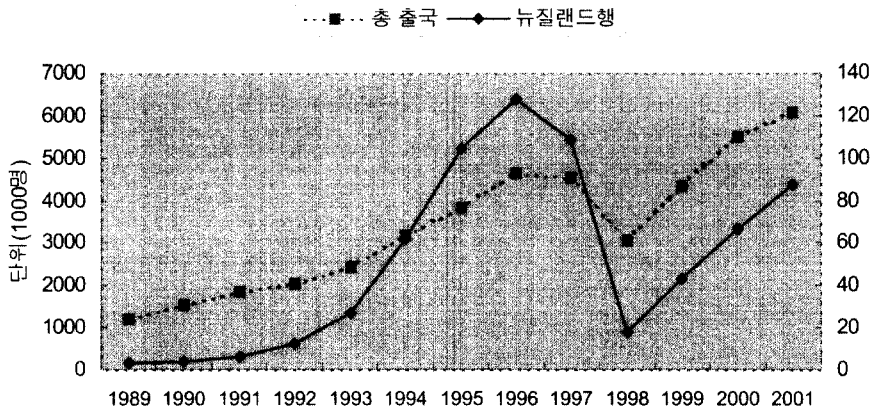


그림 2. 한국관광객의 총출국 및 뉴질랜드행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1989-2001.

있다. 1997년 6월 기준 일 년간 한국인의 뉴질랜드 입국은 129,378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였지만,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로 1997년 12월에는 78%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우리 나라의 해외로 총출국자는 2000년에 와서 다시 외환위기 이전의 규모를 회복하였지만, 뉴질랜드행 출국자는 아직 외환위기 이전의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뉴질랜드로의 출국자는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수년 내에 예전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관광객의 비교

한국관광객에 관련된 뉴질랜드 관광청 자료를 통하여 비교 가능한 지표는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방문목적, 성별, 연령별, 체류기간, 계절별 등이 있다.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1997년 6월과 2002년 6월 기준으로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1) 방문목적

한국관광통계에 의하면 2002년 1월의 한국인 해외관광객 전체의 방문목적 중 관광목적이 48.1%, 업무가 22.3%, 친지방문 9.2%, 유학연수 7.2%, 승무원 9.3%, 기타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업무목적이 매우 낮고, 관광목적이 높게 나타나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에는 관광목적 방문객이 86.2%를 차지하여 대부분 관광목적 관광객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2년에는 66.4%로 관광목적 방문객의 비중이 낮아졌다(표 1).

표 1. 한국인의 뉴질랜드 방문목적

	1997년		2002년	
	방문객수	%	방문객수	%
관광	111,547	86.2	64,955	66.3
친지방문	8,440	6.5	19,932	20.4
업무	2,205	1.7	2,792	2.9
기타	7,186	5.6	10,201	10.4
합계	122,192	100.0	87,679	100.0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1997-2002.

친지방문은 6.5%에서 20.4%로 크게 증가하였는

데, 늘어나는 한국인의 뉴질랜드 이민자와 관련된 친지들의 방문 증대로 볼 수 있다. 업무목적 방문객도 1.7%에서 2.9%로 증가하여 단순 관광목적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학습을 위한 방문으로 보여지는 기타 부분도 5.6%에서 10.4%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방문목적이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학생층들은 관광뿐만 아니라 영어학습을 목적으로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화시대에 영어능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호주에서도 이미 방학 등을 이용한 한국학생들의 학업과 관광을 겸한 여행 양상이 이루어져왔으며 그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Short, Boniche, Kim & Li, 2001; 조배행, 1998).

(2) 성별

2001년 한국인 총 출국자 통계에 의하면 남성이 59%, 여성이 41%이다. 한국에서는 남성 출국자가 근본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출국이 많은 대상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3개 국가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한국인 중에서 1997년에 비하여 2002년에는 남성이 조금 증가하여 47.6%를 차지하였지만 여성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52.4%) 나타나고 있다(표 2).

표 2.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의 성별 비교

	1997년		2002년	
	방문객수	%	방문객수	%
남성	60,010	46.4	46,585	47.6
여성	69,368	53.6	51,295	52.4
계	129,378	100	97,880	100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1997-2002.

(3) 연령별

외환위기 이후 한국관광객의 연령별 변화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관광객의 연령별 구성은 총 뉴질랜드 방문객과 비교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뉴질랜드 전체를 보면 1997년이나 2002년이나 연령별 구성 변화는 거의 없고 25세에서 34세의 연령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인은 상대적

으로 25~34세의 연령층이 낮은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15세 미만을 포함한 35~44세의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표 3).

표 3.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의 연령별 비교

연령	총 뉴질랜드 방문객 구성비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 구성비	
	1997년(%)	2002년(%)	1997년(%)	2002년(%)
15세 미만	7.6	8.4	5.3	14.6
15-24세	12.1	12.8	6.1	10.2
25-34세	21.6	21.6	15.5	15.5
35-44세	18.1	17.7	17.9	21.3
45-54세	17.7	17.2	20.0	16.2
55-64세	13.9	13.7	26.2	16.3
65세 이상	9.0	8.6	9.0	5.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1997-2002.

또한 한국관광객은 연령별 구성변화가 새로운 패턴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세 이하는 1997년에 5.3%를 차지하다가 2002년에 와서 14.6%로 약 3배가 증가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아울러 15~24세 연령층과 35~44세 연령층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에 증가한 가족단위의 방문객, 학생층의 학업목적 방문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45세 이상의 노년층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후 2002년의 한국관광객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이전만 하더라도 '효도관광'이라 불리지는 단체 패키지관광으로 많은 노인들이 방문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적 현실이 반영되어서 이러한 단체 패키지관광보다는 개별관광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노년층관광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노년층에서 젊은 세대로 그 비중이 변하고 있다.

(4) 체류기간

외환위기 이후 한국방문객의 체류기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목적은 5.8일에서 12.1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친지방문도 29.9

일에서 42.3일로 증가하였다. 업무상방문도 12.4일에서 16.9일로 길어져서 종합적으로는 9일에서 22.7일로 약 2.5배가 길어졌다(표 4).

표 4.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의 목적별 체류기간 비교

	관광목적	친지방문	업무	평균 체류기간
1997년	5.8	29.9	12.4	9.0
2002년	12.1	42.3	16.9	22.7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1997-2002.

이러한 현상은 장기 관광체류자가 많아진 것으로 1997년 이전에는 관광목적 방문객이 대체로 6일 정도의 체류를 한 반면 1998년 이후에는 10일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이 많아졌다. 특히 1998에는 단체관광객이 외환위기의 파급효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소수의 장기적인 개인여행이 많아서 가장 긴 체류기간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다시 경제회복에 힘입어서 단기적인 단체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그 체류기간이 줄고 있지만, 어학연수목적의 방문객과 단독 배낭여행자의 증가로 앞으로 한국인의 체류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5) 계절별

월별 계절별에서도 한국인의 뉴질랜드 방문은 차별화된 특징을 나타낸다. 한국인의 뉴질랜드 방문의 전성기였던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의 일년과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의 한국인의 월별 뉴질랜드 입국자 수와 그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 보면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은 다른 국민에 비하여 2월이 적고 1월과 7월이 많음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학사일정에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표 5>에 의하면 외환위기 전후에 변함 없이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12월과 1월에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있다. 긴 겨울방학이 개별여행과 어학연수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6년에는 단체관광의 유행으로 11월과 3월의 비중이 높았지만, 2001년 이후에는 개별여행 및 어학연수의 증가로 11월과 3월의 비중이 낮아지고 7월과 2월의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다. 아울러 9월과 5월은

여전히 비중이 낮은 달로 나타나는데, 9월의 추석과 5월의 가정의 달이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의 계절별 비교

월별	1996~1997년		2001~2002년	
	방문객수(명)	구성비(%)	방문객수(명)	구성비(%)
7	10,224	7.9	10,285	10.6
8	10,032	7.8	6,810	7.0
9	6,736	5.2	5,520	5.6
10	10,268	7.9	5,984	6.1
11	14,110	10.9	6,900	7.0
12	16,236	12.6	11,101	11.4
1	16,283	12.7	14,238	14.6
2	9,860	7.6	8,466	8.6
3	12,869	9.9	8,262	8.4
4	8,704	6.7	7,973	8.1
5	7,434	5.7	5,698	5.8
6	6,622	5.1	6,643	6.8
합계	129,378	100.0	97,880	100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1996-2002.

3.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한 한국관광객의 특징

1) 응답자의 속성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속성은 인터넷 설문 조사에 의한 분석으로 파악하였다(표 6). 104명의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59.6%, 남성이 40.4%로 여자가 더 많았다. 실제 방문객수는 거의 비슷하지만(여성이 52.4%) 인터넷상의 설문응답률은 여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령별로는 15세에서 24세가 응답자의 45%로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세에서 34세 연령층이 응답의 83%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터넷상의 설문응답의 주 연령층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45세 이상은 2%로 고령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서 고령자만의 조사에는 아직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접수된 설문조사에서 최연소는 13세이고 최고령자는 58세였다.

응답자 학력은 대졸 이상이 52.9%이며, 현재 대학생을 포함하면 89.5%로 학력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의 직업은 대체로 인터넷 환경이

유리한 대학생들을 포함한 학생이 절반으로 가장 많았으며(50%), 사무직이 27.9%로 나타났다.

표 6.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속성(n=104)

사회경제적 속성		응답자수	구성비(%)
성별	남	42	40.4
	여	62	59.6
연령별	15세 미만	2	1.9
	15-24	47	45.2
	25-34	40	38.5
	35-44	13	12.5
	45-54	1	1.0
	55세 이상	1	1.0
학력	중재	2	1.9
	고재	4	3.8
	고졸	3	2.9
	전문대졸	2	1.9
	대재	38	36.5
	대졸	45	43.3
	대학원생	4	3.8
직업	대학원졸	6	5.8
	학생	52	50.0
	사무직	29	27.9
	사업	8	7.7
	주부	4	3.8
	기술자	4	3.8
	무직	4	3.8
월평균 가구 총소득	시간제	3	2.9
	100만원 미만	3	2.9
	100-199	13	12.5
	200-299	31	29.8
	300-399	23	22.1
	400-499	18	17.3
500-이상	16	15.4	

자료: 인터넷 설문조사

응답자 가구 월소득은 대체로 중류생활 이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상이 84.6%이며, 월 500만원 이상도 15.4%를 나타내었다.

2) 방문장소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남북섬 모두 방문한 방문객은 56.7%, 북섬만 방문한 경우는 32.7%, 남섬만 방문한 경우는 5.8%, Auckland만 방문한 경우는 4.8%로 나타났다. 남섬보다 북섬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뉴질랜드에서 한국간 직항 항

공노선이 대한항공만이 있으며 대한항공은 Auckland 공항만 이용하기 때문이다¹¹⁾.

표 7. 응답자들의 주요 방문지

방문지	빈도수(n=104)	구성비(%)
Auckland	83	79.8
Rotorua	77	74.0
Taupo	64	61.5
Christchurch	63	60.6
Queenstown	53	51.0
Hamilton	49	47.1
Waitomo 동굴	45	43.3
Wellington	44	42.3
Milford Sound	39	37.5
Nelson	34	32.7
Picton	33	31.7
Bay of Islands	30	28.8
Dunedin	30	28.8
Coromandel 반도	28	26.9
Franz Josef 빙하지대	28	26.9
Napier	25	24.0
Kaikoura	18	17.3
Fox 빙하지대	18	17.3
Tongariro 국립공원	16	15.4
Cook산 국립공원	15	14.4
Invercagill	15	14.4
Abel Tasman 국립공원	13	12.5

자료: 인터넷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방문한 도시 및 주요 관광지에서 10% 이상 방문한 곳만 나타난 것이 <표 7>이다. 방문장소는 <표 7>에서와 같이 Auckland, Rotorua, Taupo, Christchurch, Queenstown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항공노선 및 교통체계의 영향으로 Auckland와 Christchurch 두 도시를 축으로 방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설문응답자 중에서는 젊은 연령층이 많은 관계로 이들의 활동성향이 많이 작용하여서 Taupo와 Queenstown같은 모험 활동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단체관광은 Auckland-Waitomo동굴-Rotorua-Auckland로 돌아오는 단기간 프로그램이 가장 일반적인데, Auckland에서 버스로 비교적 가깝고 석회동굴이 잘 보존된 Waitomo 동굴과 화산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Rotorua 지열지대(thermal area)에 관련된 자연관광이 주 대상이다.

Picton은 북섬 Wellington을 잇는 남섬의 작은 항구도시로 Picton의 방문은 남북을 잇는 배를 타 보았다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31.7% 이상이 뉴질랜드 남북섬 일주를 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방문지역을 구분해 보면, 북섬은 Auckland, Waitomo 동굴, Rotorua, Taupo가 주요 방문지역이 되며, 남섬은 Christchurch를 중심으로 Queenstown과 Milford Sound가 주요 방문지역을 이룬다. 이밖에 수도 Wellington과 교육도시 Hamilton이 한국인의 방문 빈도가 높은 지역이다. 반면에 뉴질랜드 현지인에게 매우 인기있는 지역인 Tongariro 국립공원(15.4%), Cook산 국립공원(14.4%), Abel Tasman 국립공원(12.5%)이 한국인에게는 정보 부족과 교통불편 등의 이유로 방문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3) 관광활동

참여활동 조사로서 국민성 또는 관광에 대한 습성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관광지에서 가만히 쉬지 않고 뭔가를 보거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습성과 여행사의 일정 때문에 다른 나라 방문객에 비하여 같은 시간 내에서 참여 활동이 높게 나타난다. 그것은 짧은 체류기간에도 불구하고 방문지나 관광활동은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8>은 응답자들이 참여한 활동에 대한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관광안내센터(75.0%), 박물관(73.1%), 인터넷 PC방(67.3%)이 방문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관광안내센터는 여행정보 수집과 각종 예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방문을 많이 한 것 같다¹²⁾. 뉴질랜드의 대부분 주요 관광지는 박물관을 함께 유지시켜서 관광객에게 학습의 장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어 방문객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PC방은 이제 해외 관광객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연락과 서신을 교류하고, 여행정보와 예약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단체관광을 통한 Rotorua의 높은 방문으로 온천활동(63.5%)과 전통 마오리(Maori) 춤 공연(57.7%)이 높게 나타났다. 극장, 카지노, 번지점프(bungy jumping) 등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

자의 1/2 이상이 경험하였다.

표 8. 응답자의 관광활동

방문 및 참여	구성비(%)	방문 및 참여	구성비(%)
관광안내센터	75.0	동물원	41.3
박물관	73.1	Milford Sound	37.5
인터넷 PC방	67.3	수족관	31.7
온천	63.5	젯보트(Jet Boating)	27.9
극장	62.5	골프	27.9
기념품점	59.6	빙하지대	26.9
Maori 민속춤	57.7	농장견학	26.0
카지노	51.0	산업시설	25.0
공원	51.0	래프팅(Rafting)	18.3
번지점프	51.0	트레킹(Tramping)	17.3
수영	47.1	스키	16.3
야생관찰	45.2	포도주 시음 관광	14.4
반딧불 동굴	43.3	경비행기	11.5

자료: 인터넷 설문조사

이러한 관광활동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뉴질랜드의 독특한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활동으로, 지열지대(Rotorua, 74%), 야생관찰(45.2%), 반딧불 동굴(45.3%), 피요르드 해안(Milford Sound, 37.5%), 빙하지대(Franz Josef, Fox, 26.9%) 관찰이 해당된다.

- ② 뉴질랜드의 독특한 모험관광활동으로, 번지점프(bungy jumping, 51.1%), 제트보트(jet boating, 27.9%), 래프팅(rafting, 18.3%), 관광비행(scenic flight, 11.5%) 등에 참여가 많았다.
- ③ 뉴질랜드에서 유리한 운동으로 수영(47.1%), 골프(27.9%), 트램핑(tramping, 17.3%)³⁾, 스키(16.3%) 등에 참여가 높았다.
- ④ 이 밖에 뉴질랜드의 농목업 발달에 의한 포도주 시음 관광(wine tour, 14.4%), 농장견학(farm tour, 26.0%)에서도 참여가 많았다.

4) 여행 만족도

응답자의 뉴질랜드 여행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14개의 항목으로 분석한 결과 5점 척도에 평균 3.52로 나타났다(그림 3). 응답자들은 8개 항목에서 50%이상이 기대이상으로 좋음을 표현하였는데 자연경관, 환경의식, 관광정보, 지역주민, 신변안전, 기후, 숙박시설, 경비에 대한 만족이 해당된다.

반면에 응답자의 20% 이상이 기대보다 나쁘게 평가하였는데 금융/환전, 쇼핑/오락, 의사소통, 음식, 교통/통신이 해당되었다.

한국 관광객들은 뉴질랜드의 자연에 가장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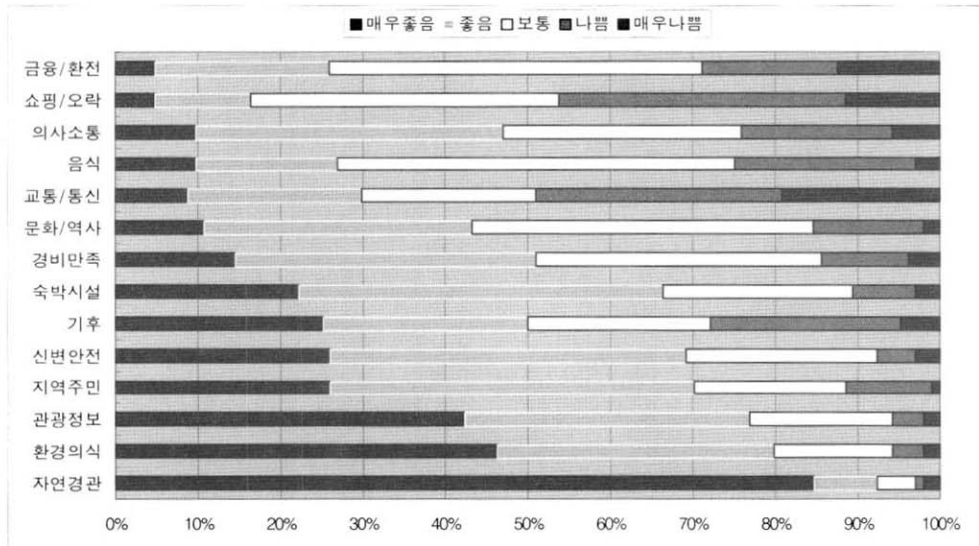


그림 3. 응답자들의 뉴질랜드 관광의 만족도 평가

자료: 인터넷 설문조사

력을 느끼며 84%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 환경의 식 수준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관광정보와 관광안내원도 훌륭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문화·역사적 유산, 신변안전, 숙박시설, 경비에 대한 만족감에 대하여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날씨, 교통, 의사소통, 음식, 쇼핑 및 오락, 금융 및 환전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여기는 관광객이 있었다.

특히 대중교통체계와 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라서 불편한 경우를 경험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야간의 오락 및 쇼핑기회가 적어서 불편하거나 지루한 시간을 보낸 응답자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화폐의 공식환전소가 없어서 여행 중 고생을 겪은 관광객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2002년 8월 현재 뉴질랜드에는 공식적인 한국화폐의 환전소는 Auckland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계 은행에서 가능할 정도이다.

자연관광이 중심인 뉴질랜드는 날씨에 따라 매력이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날씨 변화가 심한 계절에 방문한 관광객이 기후와 경관에 불만을 표시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문화의 차이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그리고 의사소통 부족 및 한글안내의 부족으로 만족한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뉴질랜드 관광은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오고 싶어 하는 방문객이 64.4%에 이를 정도로 한국관광객에게 인기가 좋은 곳임에는 틀림없다. 남성보다 여성이 뉴질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3.4878이고 여성은 3.5902로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실제로 방문객 수에서도 남성(47.6%)보다 여성(52.4%)이 높게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의 뉴질랜드 방문의 특성 변화에 대하여 뉴질랜드 관광청의 자료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찰한 것이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연구는 자료상 제한이 많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 추세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관광의식이 이전보다 크게 달라졌다. 무절제하고 낭비적인 단체관광이 감소되고 개인배낭여행, 영어연수, 친지 만나기, 사업상의 출국이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 단체관광 또는 효도관광 위주에서 어학연수, 개인 단독여행 또는 가족여행 등으로 노인층이 감소하고 학생층이 증가하였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방문객의 체류일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과소비 형태의 관광에서 장기간의 경제적 관광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여행 일정은 뉴질랜드의 관광시설,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모험관광, 단체 패키지관광 일정 이 주로 작용하였다. 주요 방문지는 관광센터, 박물관, 인터넷PC방 등이었는데, 주로 젊은 관광객들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뉴질랜드를 방문한 한국인들의 관광 만족도는 14항목을 묻는 104명의 응답에서 5점 척도에서 평균 3.52를 나타내어 비교적 만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8개 항목에서는 기대보다 만족스러웠고, 5개 항목에서는 기대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현하였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관광관련 단체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의 변화하는 특성에 관심을 갖고 정책과 경영에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활용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뉴질랜드를 방문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도하였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더욱 보완되어야 할 방법으로 간주된다. 좀 더 합리적인 인터넷 조사방법과 폭넓은 응답자들의 참여에 의한 새로운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사 사

뉴질랜드 Waikato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박사후 연구과정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지리학과 Dr. John Campbell, Dr. Anne-Marie dHautesserre, Dr. Hamish Rennie, Miss Susanna James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인터넷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응답자 여러분과 다음 카페의

“뉴질랜드 이야기” 운영자에게도 감사드린다.

註

- 1) 예전에는 대한항공이 남섬의 Christchurch에도 경유하였지만 취소되었고, 2003년 후반기에 아시아나 항공이 새로 항공노선을 열 계획이다.
- 2) 뉴질랜드의 관광안내센터(Visitor Information Centre)는 뉴질랜드 관광국(New Zealand Tourism Board)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2002년 6월 현재 94개의 관광안내센터가 있다. 모든 관광안내센터는 National, Regional, Local 수준의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그 역할이 조금 다르다. Auckland, Rotorua, Christchurch, Queenstown 등 8개 주요 관광지에는 National Visitor Information Centre가 있으며, Wellington, Hamilton, Dunedin 등 54개 지역에는 Regional Visitor Information Centre가 있고, Mount Maunganui, Mt Ruapehu, Wanaka 등 32개 지역은 Local Visitor Information Centre가 있어 관광규모와 그 안내소의 규모를 차등화하여 능률적인 관광 안내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 관광 안내센터는 전국의 모든 관광지와의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교통과 숙박 및 관광에 관련된 모든 예약을 관광안내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다.
- 3) 뉴질랜드에서는 트레킹(trekking)이란 표현보다는 트램핑(tramping)이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트램핑은 단순한 등산만 의미하기보다는 숲을 산책하면서 자연을 공부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文 獻

김영성, 1997, 뉴질랜드의 한국관광객 특성, *지리학 연구*, 31, 41-58.

최재우, 2001, 뉴질랜드 생태관광의 특성,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Cha, S. B. and Jeong, D. C. 1998. Travel Motivations of Korean Pleasure Travelers to Australia and New Zealand, *Pacific Tourism Review*, 2, 181-190.

Chen, J. S. and Hsu, C. H. C., 2000, Measurement of Korean Tourists' Perceived Images of Overseas Destin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 411-416.

Cho, B. H., 1997, Korean Tourists in Australia: Comparisons of Activity Participation, *Islands: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Institute of Australian Geographers and New Zealand

Geographical Society), 111-115.

Cho, B. H., 1998, Assessing Tourist Satisfaction: An Exploratory Study of Korean Youth Tourists in Australia, *Tourism Recreation Research*, 23(1), 47-54.

Collier, A., 1999, *Principles of Tourism: A New Zealand Perspective*(5th, ed.), Auckland: Addison Wesley Longman NZ.

Dench A., 2000, *Extreme NZ: A Thrillseekers Guide*, Auckland: New Holland Publishers.

Hall, C. M. and Kearsley, G., 2001, *Tourism in New Zealand: An Introduc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Hall, C. M. and Page, S. J., 2002, *The Geography of Tourism and Recreation*(2nd 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Kang, S. 2000. Tourism, Migration and Emigration: Travel Patterns of Korean-New Zealanders in the 1990s, *Tourism Geographies*, 2(1), 50-65.

Litvin, S. W. and Kar, G. H., 2001, E-Surveying for Tourism Research: Legitimate Tool or a Researchers Fantas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9, 308-314.

Madge, C. and O'Connor, H., 2002, On-line with E-mums: exploring the Internet as a Medium for Research, *Area*, 34(1), 92-102.

McDermott Fairgray Group Limited, 2000, *International Tourism Forecasts to New Zealand 2000-2006*.

New Zealand Tourism Board, 1996, *Tourism in New Zealand: Strategy & Progress*.

Park, J. M., and Mok, C., 1998, Travel Motivational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Demographics: the Korean Market, *Pacific Tourism Review*, 2, 109-120.

Pearce, D. G., 1999, Towards a Geography of the Geography of Tourism: Issues and Examples from New Zealand, *Tourism Geographies*, 1-4, 406-424.

Reisinger, Y. and Turner, L. W., 2002,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Asian Tourist Markets

- and Australian Hosts (Part 1),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 295-315.
- Short, J. R., Boniche, A., Kim, Y., and Li, P. L., 2001, Cultural Globalization, Global English, and Geography Journals, *Professional Geographer*, 53(1), 1-11.
- Statistics New Zealand, 1989-2002, *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 Tierney, P., 2000, Internet-Based Evaluation of Tourism Web Site Effectiveness: Methodological Issues and Survey Resul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9, 212-219.
- Tourism New Zealand, 2001, *100Years Pure Progress: 1901-2001 One Hundred Years of Tourism*.
- Wang, Z. H., Kandampully, J. and Ryan, C., 1998, Taiwanese Visitors to New Zealand: An Analysis of Attitudes, *Pacific Tourism Review*, 2, 29-41.
- Woo, K. S. and Page, S. J., 1999. Case study: Tourist demand in East Asia Pacific—the case of the South Korean outbound market and activity patterns in New Zealand. in Hall, C.M. and Page, S.J. (eds.), *The Geography of Tourism and Recreation: Environment, Place and Spa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78-84.
- Yarmy, W. M., 1992, Growth Potential of Korea's Outbound Tourist Market to United States Travel and Tourism,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1(1), 89-94.
- 뉴질랜드이야기(<http://cafe.daum.net/newzealand>)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 대한민국 통계청(<http://www.nso.go.kr>)
- 한국관광공사(<http://www.knto.or.kr>)
- Statistics New Zealand(<http://www.stats.govt.nz>)
- Tourism New Zealand(<http://www.tourisminfo.govt.nz>)

(접수 : 2002. 12. 23, 채택 : 2003. 3. 28)